

광양만권 공장 지을땅 없어 '아우성'

입주 대기 업체만 10여곳...단지 조성 더더 경제 활성화 걸림돌

“공장 지을 땅이 없어 업체들이 아우성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업체만 10여 곳에 달하는 등 부지안이 심각해 세종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광양만권이 산업용지 부족으로 속 앞이를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입주하려 해도 땅이 없어 되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준공한 광양제철소 후관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관 업체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기업만 10여 곳이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 기업도 있다.

광양만권청은 최근 준공한 연산 200만 규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관공장의 준공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후관제품 국내수요는 1100여만대로 이 중 400만대 수입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 후관공장 준공으로 수입량이 270여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연간 수입대체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물류비 절감과 연관 생산체계를 위한 후관 2차 가공업체들이 광양만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마그네슘공장 등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신소재클러스터 연관 기업과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한 여수산단의 2차 가

공업체들도 육상수송과 및 항만 등 물류 장점을 큰 광양만권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일본 기업들도 재난에 안전한 광양만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양지역은 지난 17년간 지진 발생 기록이 단 한차례도 없다.

아시아경제협력재단은 “광양만권의 경우 자동차와 가전의 핵심 부품인 철강과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제철소와 화학공장이 5분에 위치해 있어 일본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21일 일본 정밀기계 업체인 (주)엘티아이 가 울촌산단 내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준공했고, 에이와국토환경(주)도 전남테크노파크에 법인을 설립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더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개발 중인 세종산단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양만청 투자기획팀 관계자는 “광양에 공장용지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내줄 용지가 없어 보상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지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세종산단을 선분양하고, 울촌2산단·황금산단 조성 사업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참이슬 카톤 새단장



참이슬이 봄을 맞아 병 라벨에 삽입된 카톤을 회사하게 새 단장 했다.

이번 참이슬 카톤 새단장은 전통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해 왔다는 점에 착안해 계절감을 풍부하게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카톤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생활하는 열 두명의 캐릭터 주인공마다 봄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 정감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환율 30개월만에 1100원 붕괴

코스피 2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내주면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4월 강세장’의 기대가 한껏 고조된 증시에서도 환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기반으로 코스피는 옛새째 오르며 두 달 만에 ‘2,100 고지’를 되찾았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7.50원(0.61%) 내린 1,096.70에 거래를 마쳤다. 2008년 9월10일(종가, 1,095.5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환율 하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심리에 한동안 1,100원 선을 지켰지만 오후 들어 달러 매도 공세에 낙폭을 키웠다.

환율 하락은 달러화 약세 또는 원화 강세를 의미한다. 중동 정정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주춤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결과다.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점은 원화를 강세로 이끌었다. 여기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쓸어들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의 ‘바이코리아’에 코스피는 2,100선을 가볍히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15.32포인트(0.73%) 오른 2,106.70에 마감했다. 2,100을 웃돈 것은 지난 1월28일 2,107.87 이후로 두 달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5.21포인트(1.00%) 오른 525.42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천979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다.

지난 16일부터 12거래일간 순매수액은 3조원에 육박한다. 3월 월간으로는 약 1조2천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신용대출 44% 급증 '긴장'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말 3조2000억원이던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 들어 1조원 증가하면서 연간 증가율이 43.8%에 달했다.

저축은행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2009년 말 5.0%에서 지난해 말 7.1%, 1월 말 7.6%로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 걱정스럽다”며 “리스크 관리와 모집 방식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이 ‘카드사태’ 때와는 달리 다중 채무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급증세가 지나치면 창구지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가방속 작은 꽃길

광주신세계 레소포색 매장에서는 ‘작은 꽃길’이라는 주제로 나들이에 듣기 좋은 플라워 프린트의 다양한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그룹 통합 CI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은 31일 ‘Together for a better future’라는 그룹의 새 비전과 통합 CI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새 비전은 인간 존중 및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합 CI는 ‘HYUNDAI MOTOR GROUP’이라는 이름을 푸른색 글씨에 담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세화 광주본부세관장 오늘 취임

광주본부세관은 “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제31대 정세화 광주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갖을 예정이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정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에 임용된 뒤 1998년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대전세관장을 거쳐 평택세관장, 울산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정세관장은 취임사에서 “문화와 예술의 고장,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 광주에 오게 돼 기쁘다”며 “수출기업



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관세행정 역할을 집중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관세국경의 지원이므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